



라온아띠땅가시안친구들시월보고서

빵긋:)팀 그 두 번째 이야기!

주 의

이번 라온아띠 팽가시난 친구들 시월보고서는 시월 십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에 영어를 한글로 고쳐 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주의 깊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보고서를 읽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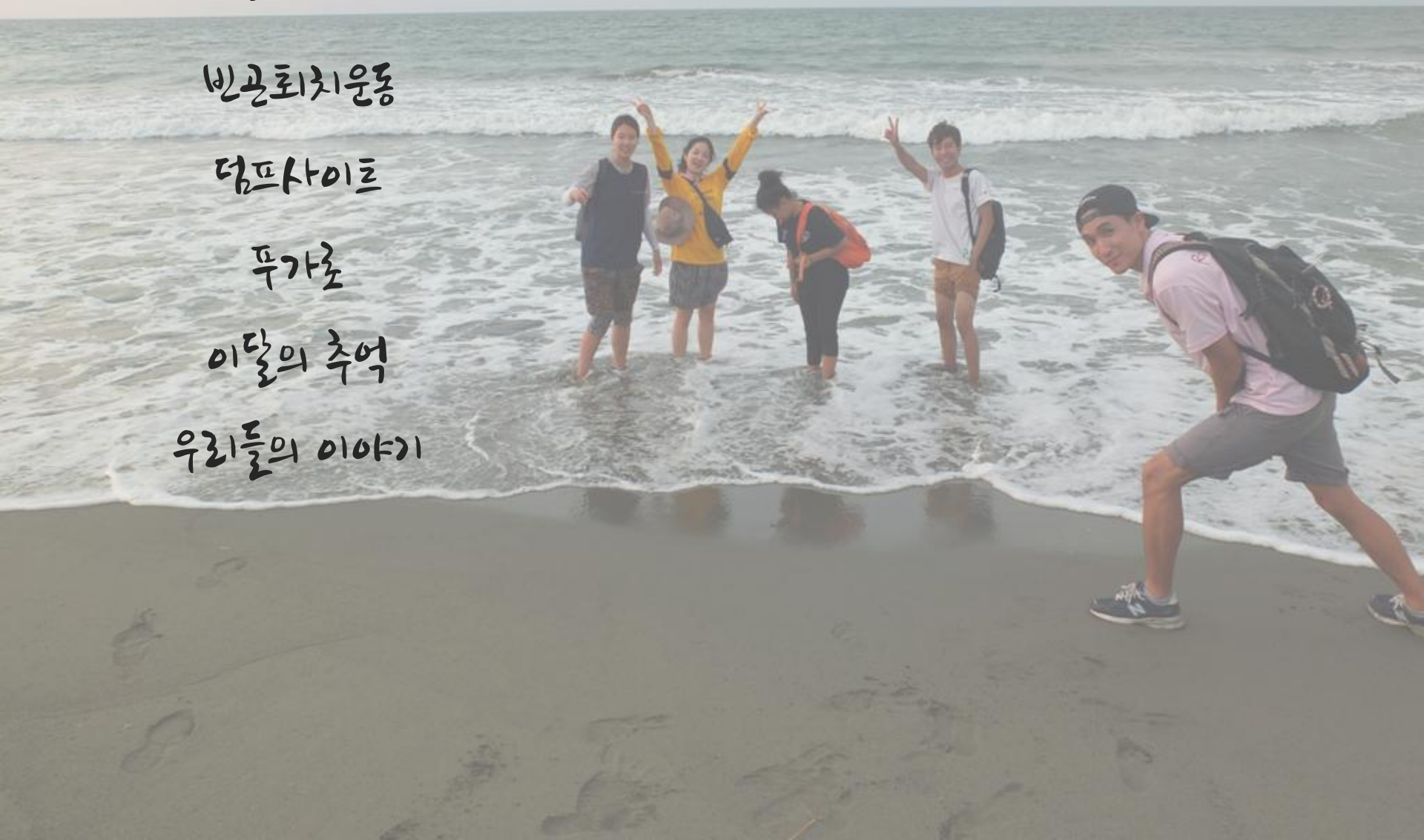
빈곤회치운동

덤프사이트

푸가로

이달의 추억

우리들의 이야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활동달력			1	2	3	4
			보고서 회의 따갈로그 수업	덤프사이트 비자연장	프리스쿨 수영보조	시니어클럽 (바이블쉐어링)
5	6	7	8	9	10	11
보고서 작성 빈곤퇴치운동 회의	싱가폴와이환영식	덤프사이트 (싱가폴와이엠씨에 이와 함께) 쭈바 클래스 따갈로그 수업	루존대학교에서 현 혈 따갈로그 수업	푸가로 영어수업 (알렌) 꾸야지미와 빈곤퇴 치 회의 보고서작성	다구판하이스쿨 -뷰티 콘테스트, 코스프레 콘테스트	개인휴식 보고서 제출 영화감상
12	13	14	15	16	17	18
빈곤퇴치운동 1차 제안서 작성	칼라샤오 방문 산타크루즈홈스테이-하리스의 생일	산타크루즈 홈스 테이 두번째날	푸가로 스티커로고제작	빈곤퇴치운동 타폴 린 & 스티커제작	빈곤퇴치운동 나나이(엄마) 집 첫 방문	덤프사이트
19	20	21	22	23	24	25
대청소 와이친구들 아띠하 우스방문	덤프사이트	영어클래스 나나이생신	영어클래스 영문보고서 작성	덤프사이트 알렌과 미팅	나나이 집 방문 자유시간	보누안 초등학교 방문 덤프사이트 나나이 집에서 저녁
26	27	28	29	30	31	
자유시간 빈곤퇴치운동 보고 서 작성 영문보고서 작성	덤프사이트	푸가로 알렌과 그린하우 스 회의 그린하우스 제안 서 작성	푸가로 (캡틴과 미 팅) 나나이집에서 경구 생일파티	경구 깜짝생일파티 홈스테이 시작	홈스테이 비자연장	

하나.

빈곤퇴치운동

“10월 17일 우리는 스티커를 들고
트라이시클로 향했다.”



빈곤퇴치운동을 정하기까지

비닐봉지 줄이기
육교사용 권장하기

감사캠페인

편 런

스쿨 투 스쿨

스티커 캠페인

1차 기획 : 한 달간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비닐봉지 줄이기, 육교사용 권장하기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빈곤퇴치운동 때가 아니어도 언제든 진행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2차 기획 :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사하기’에 초점을 맞춰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빈곤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살아가며 느꼈던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고 그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퇴치하자는 의미의 감사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3차 기획 : 이 감사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편 런’이라는 필리핀의 자선 달리기 행사 ‘대중교통 스티커 붙이기’ 두 가지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쿨 투 스쿨’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의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빈곤퇴치에 대해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다.

최종 : 그러나 ‘편 런’은 준비기간, 비용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게 되었고 스쿨 투 스쿨 또한 학교 측의 최소로 ‘대중교통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만 10월 17일 당일 진행하게 되었다.

스티커캠페인



우리의 목표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빈곤의 개념을 나누어보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

필리핀의 가장 큰 교통수단인 트라이시클과 지프니에 스티커를 붙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빈곤퇴치에 대해 알 수 있게 해보자.

1. 로고, 스티커 문구 제작 : 우리가 만든 로고는 하나의 나무에서 자라나 하나가 된 아시아를 의미한다. 또한 조그만 씨앗에서 큰 나무가 되는 것 자체가 희망을 의미한다. 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확장된 빈곤의 개념을 담아 만들었다.
2. 스티커 제작 : 트라이시클, 지프니에 붙이기 적당한 사이즈로 약 80장 정도를 제작했다.
3. 탈폴린(포스터) 제작 : 스쿨 투 스쿨 캠페인 이후 학교에 걸어놓을 큰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그 안에는 빈곤의 확장된 개념과 사진 등을 담았다.
4. 포스터, 판넬 제작 : 운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포스터와 '빈곤퇴치' 문구를 쓴 판넬을 제작하였다.

빈곤퇴치운동에 쓰인 포스터와 스티커

What is END POVERTY?

December 17 is a worldwide campaign for END POVERTY. United Nations supports the campaign achieving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hich has 8 objectives to help reduce poverty. Raonatti want to broaden the concept of poverty, not only the economical poverty or money, and also the poverty in our hearts.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1.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Reduce child mortality
5. Improve maternal health
6.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other concept of Poverty



Lack of Education

Due to lack of no proper education, there is miscommunication, language barrier, limited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they don't have a chance to make relationship with various people in the society. More people who are experiencing poverty did not give importance to education when they were young.



Corruption

People want to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want to earn more money the easiest way. However, they are choosing a darker path to earn. For example, they cheat on budget or they do not move if there is no money involve. This is the most common factor of poverty.



Selfishness

Poverty is selfishness. Everyone has a free-will, but if they use it too much, it will be change to selfishness. Selfishness makes people uncomfortable, unfair, and unjust. People should take more care with each other to have a better society, less selfishness, and more considerate people.



Negative thinking

Negative thinking is also a part of poverty. If you are pessimistic, things you try to do will be less effective. Work environment will lead into a negative environment and thus, getting unemployed will be an outcome. Positive thinking will make people grow fruitfully. Thinking positively!



Laziness

Sometimes, people are unemployed because of laziness. They don't go to school or look for a job even though their situation is getting bad. Because of laziness, they prevent themselves to develop and throw away the opportunity to live a better life. This is one factor of poverty.



Lack of Motivation

Having a dream is trying to be better. So when you have a dream, you can overcome problems (poverty, unhappiness, difficulty) and prosper. If you do not have a dream, you will give up easily. People without dreams are considered the poorest.

Let's End POVERTY



Poverty is not only suffering from hunger or lack of money, so are **selfishness, corruption, negative thinking, lack of education, laziness and lack of motivation.**

하나. 빈곤 퇴치 운동

☆ 준비과정 — 진행과정 — 소감



지연 & 롤리
장소 : 플라자 공원 앞

‘당신은 빈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하였으며 우리가 준비해 갔던 다양한 확장된 개념의 빈곤 중에는 ‘부정부패’와 ‘게으름’을 뽑았다.



영제 & 레이디린
장소 : 와이엠씨에이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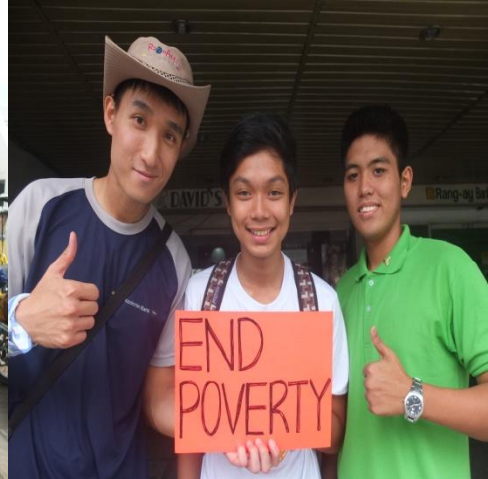
지연&롤리 팀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빈곤이 곧 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빈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서 많이 공감하시고 좋은 프로젝트라고 칭찬한 사람도 만났다.



경구 & 구인 & 말루
장소 : 말린가스 마켓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빈곤과 관련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빈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실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또한 우리가 제작한 스티커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

라온아띠땅가시안친구들이월보고서



하나. 빈곤퇴치운동

준비과정 - 진행과정 - [★]소감

경구

빈곤퇴치운동을 진행하면서 빈곤의 개념은 생각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확장된 개념을 설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결핍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 힘들었다. 나의 생각을 다른 언어를 가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않았지만 도움을 주는 코디네이터들이 있어 보다 수월했다. 따라조그어로 완벽한 설명을 못해서 아쉬웠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빈곤을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 밖에 편 런, 감사 캠페인 등등 많은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살리지 못해 아쉬운 감도 있다. 추후 빈곤퇴치운동을 지속해서 진행하고 싶다.

영제

확실히 실패다. 빈곤에 대한 확장된 개념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나는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코디네이터에게 의지만 했기 때문이다. 영어도 안되고 현지어도 안되고 아마 한국어로 했어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을 것이다. 내 자신에게 빈곤이 뭐냐고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했을 것이다. 맞다. 그 날은 지금 생각해도 확실히 실패였다. 그런데 뜻 밖의 부분에서 그 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해주었다. 뜻 밖에 나는 많은 트라이시클 운전자들과 노점상 아주머니와 친해졌다. 매일 적어도 한 번씩은 와이엠씨 에이로 향하는 길에 그 때 불행?히도 나의 타겟이 되었던 운전자들과 아주머니와 반갑게 인사를 한다. 나의 부정적이고 낙담하는 마음이 보람으로 바뀌었다. 빈곤퇴치운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빈곤퇴치가 된 곳이 바로 나였다.

라온아띠평가사님친구들시월보고서

하나. 빈곤퇴치운동

준비과정 - 진행과정 - [★]소감

구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게 진행된 캠페인,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난 처음 빈곤퇴치운동을 준비할 때, 10월 17일 하루에 사람들의 빈곤을 없앨 수 없다면 좀 더 가볍고 친근한 느낌으로 그들의 기억에 남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었다. 그래서 '감사캠페인'으로 감사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 년도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내년을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주고 싶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서 가장 내 의견을 크게 말하고 내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나 혼자 하는 캠페인이 아니었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못해 지금도 아쉽다. 그리고 스티커캠페인도 성황리에 마치지 못했기에....처음 200개의 스티커를 목표로 했던 것과 다르게 일부만 붙이게 되었다. 사실 결과는 많이 부족했던 빈곤퇴치운동이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살갑게 다가가서 우리의 캠페인을 소개하기 위해 엄청난 긴장감을 겪었고 내가 생각하는 빈곤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며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아등바등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 또한 빈곤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아직도 나에게 빈곤은 참 어렵지만! 그리고 친구가 생겼다. 내가 캠페인을 진행했던 장소는 우리가 자주 가는 시장이다. 요즘 시장을 갈 때마다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트라이시클 운전자들이 내 이름을 외우셔서 내가 지나가면 내 이름을 부르는 한다. 그리고 나도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곤 한다. 빈곤퇴치운동이 날 이곳의 주민이 되어갈 수 있게 다리 역할은 해준 것일까? 어쩌면 난 작게는 이곳에서 5개월 동안 빈곤의 다양한 개념 중 하나인 '관계의 부재'의 빈곤퇴치운동을 실천하며 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온아띠평가사민친구들이월보고서

하나. 빈곤퇴치운동

준비과정 - 진행과정 - [★]소감

지연

사실 이번 빈곤퇴치운동은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많은 부분이 취소되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특히나 ‘편 련’은 라온아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가장 큰 캠페인이 될 것이라 자부했었는데 막상 ‘편 련’을 여는 데에 2~3달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홈스테이 일정과 겹치게 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하지 못하게 되었다. ‘편 련’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실망감은 정말 컸다.

그래서였는지 약간의 기운이 뺏긴 채로 빈곤퇴치운동을 진행했던 것 같다. 스티커 붙이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나 자신에게 가졌던 목표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자’였지만 막상 캠페인을 하면서는 스티커를 얼마나 많이 붙였는가에 집착했었다. 그래서 더 아쉬웠다. 하지만 자신들의 바쁜 시간조차 쪼개가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 빈곤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현지 코디네이터 친구에게 “저 운전자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관심을 가져주는거야?”라고 물어보자 원래 누구에게나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아쉬웠지만 내가 이 곳의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시간이었다.

라온아띠평가사님친구들시월보고서

둘.

덤프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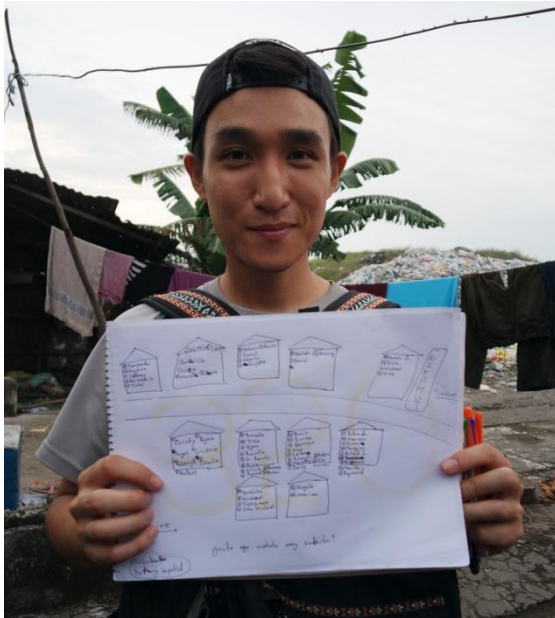
“나보고 이 아이의 할머니가 돼달라고 하는데,
정말...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에게 손녀가 생겼다...히히히”



둘. 덤프사이트

☆ 마을지도그리기 - 아띠클라세 - 상처치료 - 소감

우리는 하우스 투 하우스의 일환으로 마을 지도 그리기를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집집마다 방문하여 아빠와 엄마에게 직접 식구들의 이름을 물어보고 인사를 드리며 얘기를 나눠 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어느 집 앞에서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 집 저 집에 대한 정보를 모두 말해주었다. 그래서 이전에 계획했던 하우스 투 하우스를 잠시 미루고 그 자리에 앉아 모인 마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집 한집 방문하지는 못하였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의 성원 속에 지도를 완성하였다.



라온아띠팡가시안친구들이월보고서

둘. 덤프사이트

마을지도그리기 - ☆ 아띠클라세 - 상처치료-소감



아띠클라세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아이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집중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비 아띠클라세를 진행했다. 특정한 형식이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소통했다. 또한 알파벳 송을 함께 불러 보았는데 연령층에 따라 수준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예비 아띠클라세를 진행 한 결과, 매번 모이는 아이들이 다르고 수준이 달라 1,2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졌다. 그 결과, 4명이 함께 아띠클라세를 진행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그룹끼리 진도를 다르게 나가고 있다. 아이들이 지루해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약간의 그림이 첨부된 프린트와 플래시 카드를 이용해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있다. 또한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을 병행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라온아띠평가사님친구들이월보고서

둘. 덤프사이트

마을지도그리기 - 아띠클라세 - ★상처치료 - 소감

덤프사이트에서의 상처치료는 예정보다 늦게 10월 20일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왼쪽마을에 살고 있는 조빛의 다리에 상처를 발견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상처치료를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전 기수의 상처치료 덕분에 먼저 다가와 상처를 보여주었지만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치료를 원하지 않고 도망가서 상처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다.

후에 코디네이터에게 조언을 구하니 우리 기수에는 의료 전공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에 미숙하여 아이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상처치료 이후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아파도 도망가거나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얘기를 들으며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라온아띠팡가시남친구들시월보고서

돌. 덤프사이트

마을지도그리기 - 아띠클라세 - ★상처치료 - 소감



+꽃다한 이야기

덤프사이트에 살고 계시는 빈 할아버지는 10기 때부터 라온 아띠에게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라온아띠의 아빠와 같은 존재시다. 우리는 어느 날 할아버지의 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붓고 길게 패인 것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미 1년 전부터 다리가 안 좋으셨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병원비와 할아버지의 연세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장 약값을 달 비용조차 부족한 상황. 앞으로 우리 팡팀이 할아버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라온아띠팡가시안친구들이월보고서

경구

덤프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고 하우스 투 하우스와 아띠클라세를 진행하면서 그들과 더 가까워진 기분이다. 매번 다른 시간대에 덤프사이트를 방문 하다 보니 덤프사이트 사람들의 일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또한, 덤프사이트에서 더러운 물에 빠진 경험을 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감사했다. 비누, 손 세정제, 소독약 등등을 챙겨 주며 끝까지 나를 배려해 주었다. 활동 시간 외에도 그냥 그곳의 사람들을 보기 위해 놀러 가고 싶다. 일정이 바쁘지 않을 때 종종 놀러 가야겠다.

영제

따따이 빈이 많이 아프시다. 원래 당뇨병이 있는데 뼈에 암까지 발견되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한다. 다리를 절단하려고 결정했지만 돈이 없어서 그 어려운 결정마저도 무산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다시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계신다. 와이엠씨에이의 한 직원은 아마 오래 사시지 못하실 거라는 말까지 했다. 괜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생각하고 있다. 역시나 답은 나오지 않고 계속 똑같은 생각만 되풀이 하고 있다. 무언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겠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진다. 팡가시난 10기, 11기 그리고 보고서를 보고 있는 여러분, 어쩌면 좋죠?

둘. 덤프사이트

마을지도그리기 - 아띠클라세 - 상처치료-[★]소감

구인

처음에는 낯설고 내 몸이 쓰레기에 반응하던 것과 다르게 덤프사이트를 가는 길, 그 곳의 쓰레기, 쓰레기를 밟는 것, 쓰레기 냄새, 그리고 그곳의 아이들과 이웃들,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하다. 아이들과의 관계만 집중하지 않기로 했던 나의 다짐대로 항상 마을을 돌아다니며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 어른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사람과 사람이 정이 든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다. 가장 친하게 지내던 나보다 어린 20살 내 친구, 분명 지난주에 갔을 때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가니 출산을 해서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나보고 이 아이의 할머니가 돼달라고 하는데, 정말...기분이 너무 좋았다. 나에게 손녀가 생겼다...히히히. 서로 말이 안 통해도 표정과 손짓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언어가 다르더라도 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지연

이번 달은 조빛이라는 아이를 만날 생각에 덤프사이트를 가는 발걸음이 항상 즐거웠다. 그 곳에 가면 제일 먼저 조빛을 찾았고 난 항상 그 뒤를 쫓아다녔다. 하지만 조빛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아직은 내가 깊은 관계를 쌓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상처치료를 한다고 하면 도망가기 일쑤다.

어쩌면 덤프사이트 사람들과 많이 가까워지고 또 익숙해졌다는 생각에 지난달만큼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 더 많은 곳에 눈을 돌리고 더 깊게 마음을 여는 11월이 되었으면...

라온아띠평가시안친구들시월보고서

셋.

푸가로

“이름표 하나에도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 곳에서의 수업을 기대했었는데...”



셋. 푸가로

☆ 데이케어센터 - 그린하우스 - 소감

데이케어센터가 2주간 방학을 하면서 우리는 이번 달에 푸가로를 4번 밖에 방문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하우스 투 하우스를 진행하는 대신 데이케어센터와 바랑가이 홀 앞에 계신 어른들과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또한 경구와 영제는 또래 청년들과 함께 농구를 하며 주민들과 친해졌다.

데이케어센터

처음 데이케어 센터 수업에 들어갈 때, 아이들의 이름표를 만들어서 나눠줬다. 덕분에 아이들의 이름도 금방 외울 수 있었고 좀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이번 달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관찰하고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놀며 관계를 맺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수업에 함께 참여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예정이다.



라온아띠팡가시안친구들시월보고서



셋. 푸가로

☆ 데이케어센터 - **그린하우스프로젝트** - 소감

푸가로의 토양은 채소를 재배하기 힘든 모래로 이루어져있는 작은 섬마을이어서 채소를 사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시내로 나가야만 한다. 이로 인해 푸가로 내부에서 판매되는 채소는 푸가로 외부에서 판매되는 것 보다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조하고 식물을 기르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역할모델을 만들어 푸가로 커뮤니티가 각자 자신들의 텃밭을 가꾸도록 하고자 한다.

특히 팡가시난 와이엠씨에이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채소를 재배하여 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을 빈곤퇴치로 보고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온아띠팡가시난친구들시월보고서

준비과정

그린하우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보누안 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보누안 초등학교가 실시한 이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당시, 다구판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손꼽혔다. 이미 실행된 모습을 직접 보니 우리가 나아 가야할 방향과 많은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었다. 이 후 제안서를 푸가로의 캡틴에게 제출하고 논의를 거쳐 그린하우스 프로젝트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본격적으로 푸가로 커뮤니티와 함께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셋. 푸가로

데이케어센터 - 그린하우스 - **소감**

경구

푸가로 프로젝트를 위해 그곳의 사람들에게 직접 현지의 상황을 물어보면서 푸가로란 지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커뮤니티 활동을 준비하면서 푸가조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데이케어센터 또한 더욱 애정이 간다. 그곳의 아이들이 전보다 우리를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좋다. 몇몇 아이들은 아직도 부끄러워 하기는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함께 뛰어 놓고 따갈로그어로 소통을 하려고 한다. 청년들 또한 지나가다 보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점점 이곳에 익숙해지고 그들의 삶에 녹아 드는 기분이 든다.

구인

이제는 푸가로를 가기 위해 타는 배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진다. 한국에서 배를 탄 적을 손에 몇 번이나 꼽을 수 있을까? 필리핀에 와서 정말 원 없이 배를 타는 것 같다. 배를 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푸가조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반겨주신다. 한 번은 “무차!” 라고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흔드는 아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박..내 이름을 기억하다니... π . π 심지어 내가 모르는 아이였기 때문에 기분이 묘했다. 누군가에게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데이케어센터, 나는 그곳에 아이들도 좋고 그냥 그 곳이 좋다. 전공이 아동학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아직 하지 않은 실습을 미리 하는 듯한 기분도 들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수업을 도울 때면 ‘이 길이 내 길인가? 아닌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곤 한다. 정이 더 빨리 든 아이들을 만나면 너무 예뻐서 내 카메라에 한 장이라도 더 담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문득 ‘엄마, 아빠가 이런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ㅎㅎ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아이들의 엄마들에게 보여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도 친해지고 있다!

라온아띠평가사님친구들이월보고서

지연

9월 말에 정식으로 우리를 푸가로에 소개한 이후 우리는 이음표를 만들어 데이케어센터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음표 하나에도 반가워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 곳에서의 수업을 기대했었는데.. 필리핀의 모든 학교들이 약 2주간 방학을 하면서 이번 달에는 데이케어센터를 오직 한 번 방문해서 아쉬움이 크다. 그치만 그린하우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 나음(?) 설레는 마음이다. 10기 때부터 이야기 돼왔던 프로젝트이기에 팡가시난와이에서 거는 기대도 큰 것 같고 또한 우리도 우리만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물론 우리가 직접 마을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어떤 프로젝트를 찾아가자던 처음 목표와는 달리 우리가 팡와이로부터 제안 받았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면 다음 13기가 우리를 통해 더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영제

그저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이 좋다. 시원한 날은 정말 최고다. 바닷바람이 참 기분을 좋게 만든다. 도착하지 않았으면 할 때도 있다. 이게 이제까지 나의 푸가로에 대한 거의 모든 생각이다. 푸가로는 그저 일반적인 동네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감정이 달라질 것 같다. 푸가로를 위한 우리의 그린하우스프로젝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린하우스프로젝트가 성공했으면 하는 이유가 푸가로를 위함이 아닌 나의 성공을 위해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다.

넷.

이달의 추억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로 기억 될 듯 하다.”



1 - 헌혈의 추억



10월 8일 헌혈을 하러 루존대학교를 방문했다. 우리 팀에서는 영제와 지연이가, 코디네이터 중에는 말루와 롤리(그는 갑자기 어지럼증 호소, 양호실에서 휴식을 취함)가 헌혈에 참여했다. 우리가 참여한 헌혈은 학교 차원의 행사로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교 이사장도 참여할 정도로 크게 열렸다. 이유는 모르지만 경구와 구인이는 예기치 않게 귀빈석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학교차원에서 헌혈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 축제의 추억

뷰티콘테스트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등학교의 뷰티콘테스트! 남녀모두 참여할 수 있다. 뷰티콘테스트는 말 그대로 자신의 미를 뽐내는 콘테스트이다. 그런데 정형화된 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이 담긴 미를 통해 우승자가 결정되는 것 같다. 한 참가자는 서핑보드 의상과 소품을 준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과감한 의상에 새로운 컨셉!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개성을 담아 콘테스트에 임했다. 필리핀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축제기간에 뷰티콘테스트가 열리고 있는데, 이 또한 필리핀의 문화인 것 같다!



라온아띠평가사님친구들이월보고서

3-홈스테이의 추억



필리핀 팡가시난팀은 12월 말부터 1월까지 약 6주 동안 홈스테이를 하게 된다. 우리는 10월 13일이 우리가 홈스테이를 하게 될 가족의 생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축하를 해주기 위해 처음으로 그 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30분간 지프니를 타고 다시 한번 30분간 트라이시클을 타고 도착한 산타크루즈! 처음으로 본 농촌풍경에 다들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그 곳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다. 좁다랗게 길게 펼쳐진 길을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며 마을 속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우리가 나중에 홈스테이를 할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하리스(21살, 남)의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우리가 준비해 간 케익을 맛있게 먹고 곧 아띠하우스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오후 6시 30분이 지나면 트라이시클이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때 시간은 6시 35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 밖에 없었다. 아무 준비 없이 잠을 자게 되어 조금은 당황했지만 앞으로의 홈스테이를 미리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강가로 피크닉을 떠났다. 다 함께 물놀이를 하며 그곳에서의 시간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홈스테이 생활은 12월, 1월 보고서에서 더 자세히☺)

라온아띠팡가시난친구들11월보고서

4-새로운 만남 그리고 추억

필리핀에서 우리는 소중한 이웃이 생겼다. 한 달에 2번있는 프리스쿨 수영수업에서 우리가 열심히 가르쳤던 아이의 할머니님이 우리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신게 만남의 첫 시작이었다. 한 주에 3번이나 그 집에 방문해서 같이 점심을 먹기도 저녁을 함께 하기도 심지어 간식도 가끔 먹으며 하하호호 놀았는데, 우리의 활동지를 일주일에 4번 가는걸 생각하면 정말 자주 방문한 것이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 항상 우리에게 아낌없이 제공해주시는 나나이(엄마). 이를 통해 필리핀의 대접 문화에 대단함을 느낀다. 사실 어린 한국인 4명, 뭐가 그리 예쁘다고 이렇게 매일같이 불러서 맛있는 것 해주시고 경구 생일이라고 케익에, 저녁까지 대접해주시던 나나이, 한국에 있는 우리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 필리핀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어가는 것이 참 감사하다.



라온아띠팡가시남친구들시월보고서

5 - 생일의 추억

특별편 : 베트남의 이야기

내 생일과 홈스테이 시작일이 겹쳐서 미리 생일 파티를 했다. 평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나이의 집에 방문해 함께 케익을 먹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피 하우스에서 팀원들끼리의 시간을 가졌다.

홈스테이 출발 전, 어느 틈에 준비했는지 YMCA 식구들의 롤링페이퍼와 팀원들의 편지를 받았다. 필리핀에서 잊지 못할 선물을 받은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해 졌다. YMCA 식구들의 깜짝 몰래 카메라에 머리가 멍~ 해지기도 했다.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듯 하다. 모두 고마워!



이제 10월 10일은 베트남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주년을 맞아 생일 파티를 했다. 평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나이의 집에 방문해 함께 케익을 먹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피 하우스에서 팀원들끼리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 10월 10일은 베트남에서 홈스테이 생활을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주년을 맞아 생일 파티를 했다. 평소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나나이의 집에 방문해 함께 케익을 먹고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후 아피 하우스에서 팀원들끼리의 시간을 가졌다.



라온아피파가사님친구들시월보고서

다섯.
우리들의 이야기



개

인

소

감

정영제(로렌조)

신동엽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이다. 그의 섹드립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최고 인 것 같다. (물론 전 세계의 개그맨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자.) 신동엽의 섹드립은 정말 딱 내 궁금증을 최대치로 해 놓고선 거기에서 멈춰버린다. 속으로 ‘더! 더!’를 외치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더 했으면 선을 넘어 더러워졌을 것이다. 신동엽은 섹드립에 있어서 만큼은 수위조절의 신이 아닌가 싶다.

필리핀에 와서 너를 사귄 때 이 수위조절 때문에 더러 애를 먹는다.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 너와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아니 장난을 치면서 조금씩 더 친해졌다. 때로는 내가 너를 놀리며 때로는 네가 나를 놀리면 때로는 같은 편이 되어 제3자를 놀리며 하하호호대며 더 친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재밌게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네가 정색을 한다. ‘뭐지. 바로 3초전만 해도 너는 웃고 있었었는데’ 혹은 내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다. ‘이건 아니지. 저놈 도를 넘어섰어’. 수.위.조.절.실.패. 나도 모르게 너의, 너도 모르게 나의 선을 넘어선 것이다. 선을 넘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제일 즐거운 사이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관계’라는 탑은 한 순간에 무너지곤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선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제는 재미있게 받아 주던 네가 오늘은 같은 장난에 나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던 너의 장난이 오늘은 내게 거슬린다. 오늘 너와 나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한계선도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다. 복잡하다. 너와 나의 기분은 너와 나 사이에서만 형성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만난 또 다른 관계에 의해서 네가 어제 만난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오늘 기분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수위조절에 상당한 집중을 해야한다.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도 대화도중 너의 얼굴표정에 의해서 혹은 대답, 목소리, 몸짓, 눈빛 등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수위조절을 해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는 것안지도 모르겠다.

원래 한국에서도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타입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이 심했다. 아주 진이 빠질 지경인적도 있었다. 그런 내가 필리핀에 와서 온통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도 수위조절에 쉽게 성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면 차라리 사물과 관계를 맺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우리집앞전기줄 ; 너와의 관계는 전기줄을 타는 것 만큼 불안하고 위험하다.



아니 피아노만 남고



욕구 해소!
가끔 막힘ㅠ.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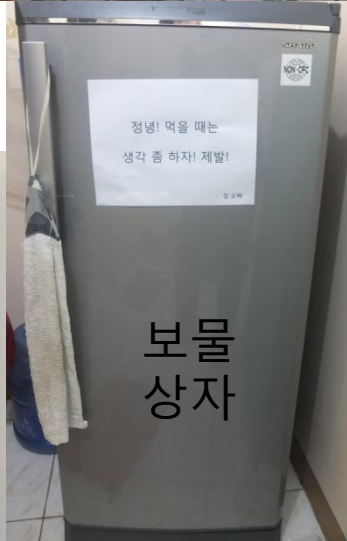
내 피부는 소중한니까!



뚜빅뚜빅



아~
시원타



보물
상자



철 통 보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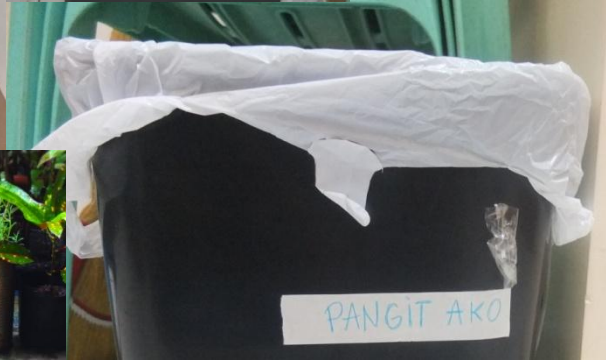
너?
너!
이
리
와



다정하게~,~



계단? 선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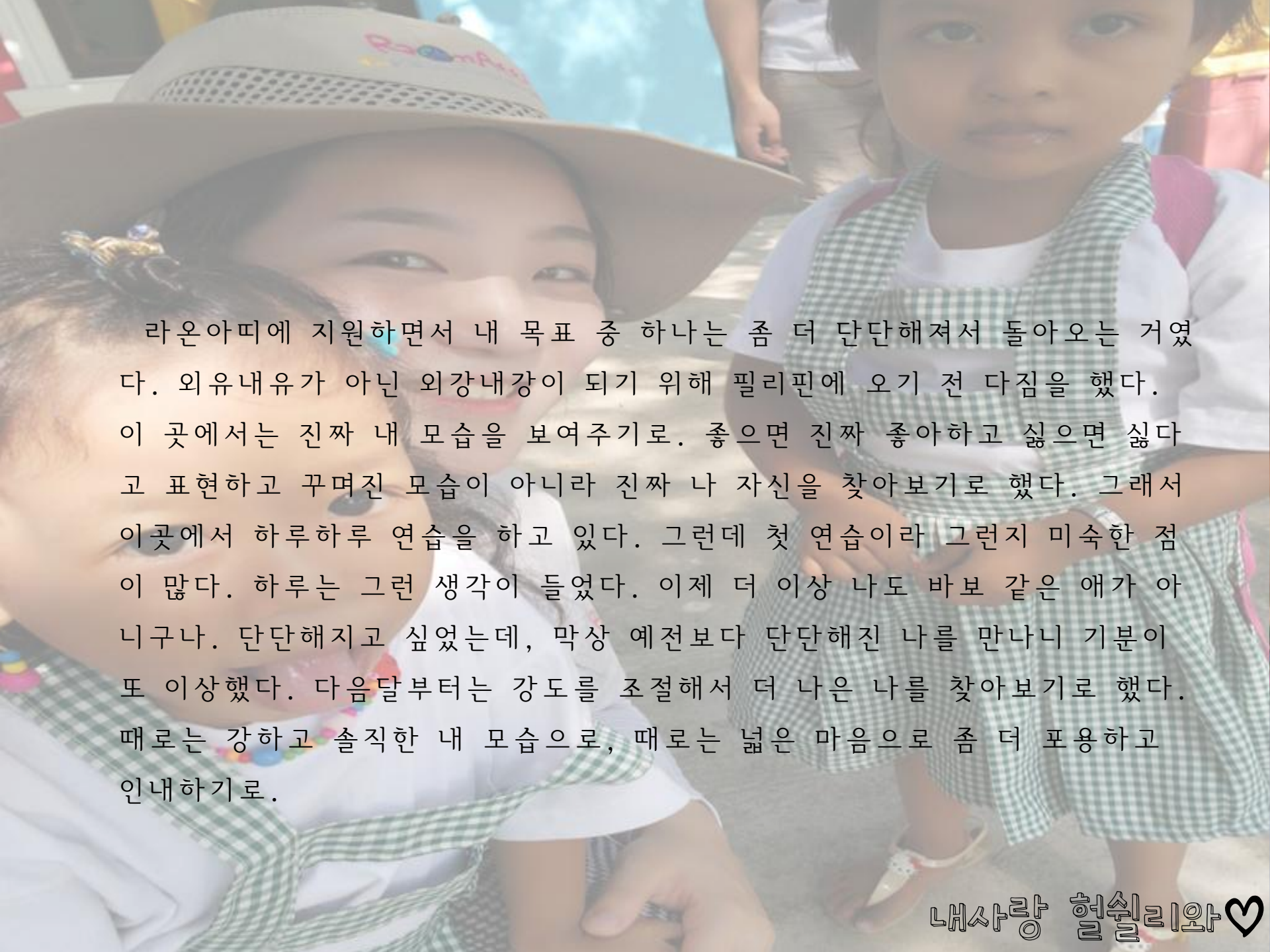
PANGIT AKO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물들.
가끔 이들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아주 사소하고
단순 명료한
문제다.



정구인(무차)

중학교 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다.’ 어떤 초콜릿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상자에 손을 넣어 초콜릿을 꺼내 맛을 본다. 여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초콜릿일 수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초콜릿일 수도, 그저 그런 맛일 지도 모른다. 내게 있어서 10월 한 달은 초콜릿의 스펙트럼이 가장 큰 한 달이었다. 하루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을 먹었다. 그 때의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다음 날은 카카오 100% 초콜릿을 먹어 ‘우웁’ 토할 것 같았다. 심지어 다음날 초콜릿을 2개 먹었는데, 아침에는 너~무 맛있는 초콜릿이었다. 근데 저녁에는 “최악! 무슨 이런 맛 초콜릿이 다 있어?” 그렇기에 초콜릿에 따라 내 기분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락가락했다. 감정소모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많았다. 5개월의 시간 동안 항상 행복하고 싶었던 내 욕심과 다르게, 필리핀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 지는 게 싫었다. 한국에서 나는 둥글게 물 흐르는 듯이 사는 가끔은 바보 같은 애였다. 남들보다 덜 예민했고 알게 모르게 여리고 모르는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쿨하게 넘겼을 일을 나는 좀 더 생각하고 더 크게 상처를 받곤 했다. 때론 기분이 나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관찮은 척 나 자신을 숨기곤 했다.



라온아띠에 지원하면서 내 목표 중 하나는 좀 더 단단해져서 돌아오는 거였다. 외유내유가 아닌 외강내강이 되기 위해 필리핀에 오기 전 다짐을 했다. 이곳에서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기로. 좋으면 진짜 좋아하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고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루하루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첫 연습이라 그런지 미숙한 점이 많다.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나도 바보 같은 애가 아니구나. 단단해지고 싶었는데, 막상 예전보다 단단해진 나를 만나니 기분이 또 이상했다. 다음달부터는 강도를 조절해서 더 나은 나를 찾아보기로 했다. 때로는 강하고 솔직한 내 모습으로, 때로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포용하고 인내하기로.



백지연(차리또)

이번 달의 나는 9월 달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지난달의 내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깝다’였으면 이번 달은 ‘빨리 휴식을 취하고 싶다’였다.

10월이 끝나갈 무렵 한창 사람과의 관계로 지쳐있었다. 서로의 신뢰도 다 떨어진 채 사소한 행동조차 불만을 가지며 툭툭댔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 매일매일 내 머리 속은 무엇인가를 계산하며 바쁘게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덤프사이트를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 곳에서만큼은 서로를 재지 않고 어떠한 계산도 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만난다. 내가 그 곳에 가져가는 것은 마음 하나면 충분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날카로워졌다. 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고 계속해서 내 안을 꼭꼭 닫아갔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곳에서만 계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만남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 같다.

지금 내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많은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생각을 놓아버려도 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도, 놓지도 못한 채 질질 끌려 다니며 지쳐가는 나 때문에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팀원들이 있어 힘낼 수 있었다.

11월에는 조금 더 밝은 이야기를 담아야겠다.

(그치만 실은 잘 지내고 있다. 밥도 잘 먹고 살도 찌고...)



어제 뭘 먹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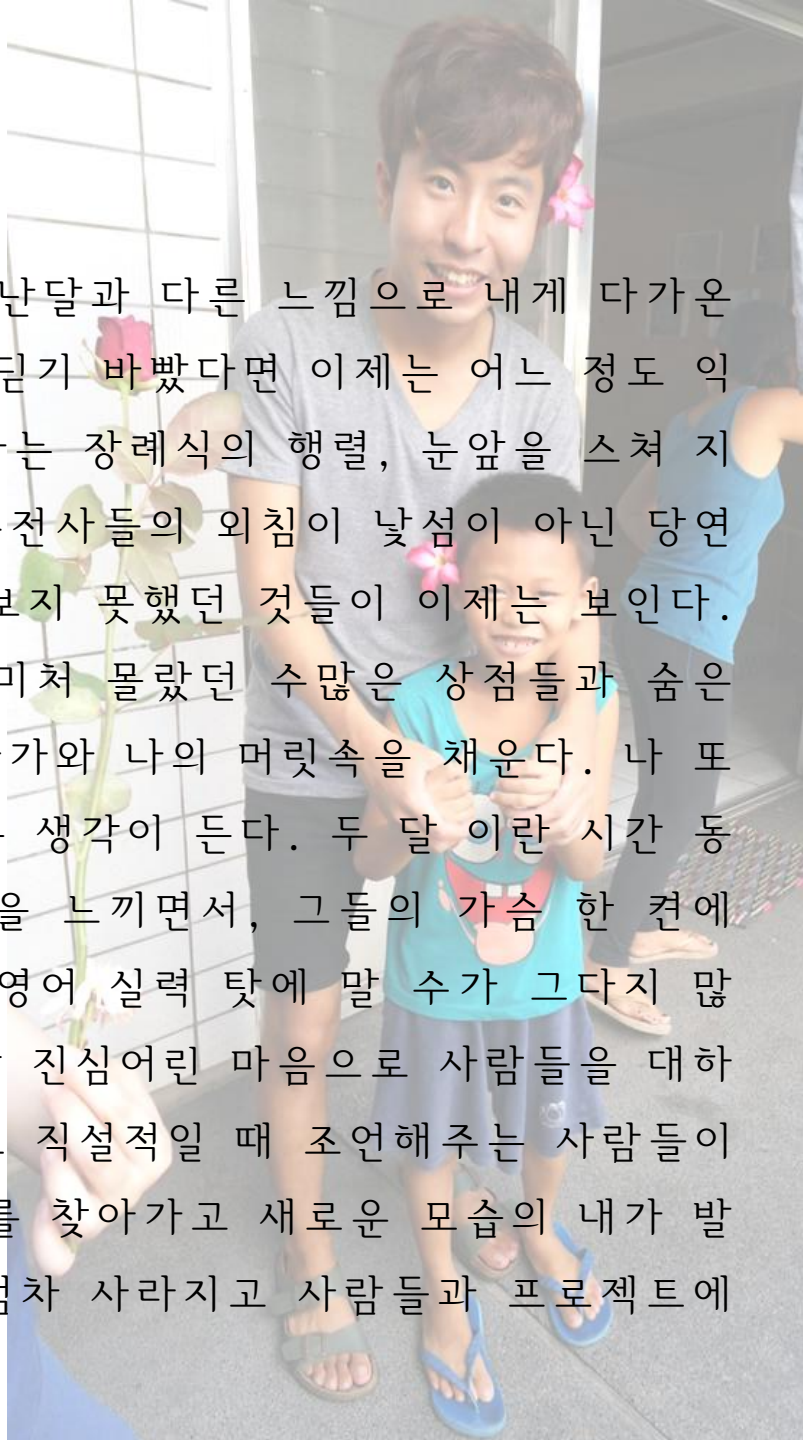
나의 사랑 너의 사랑<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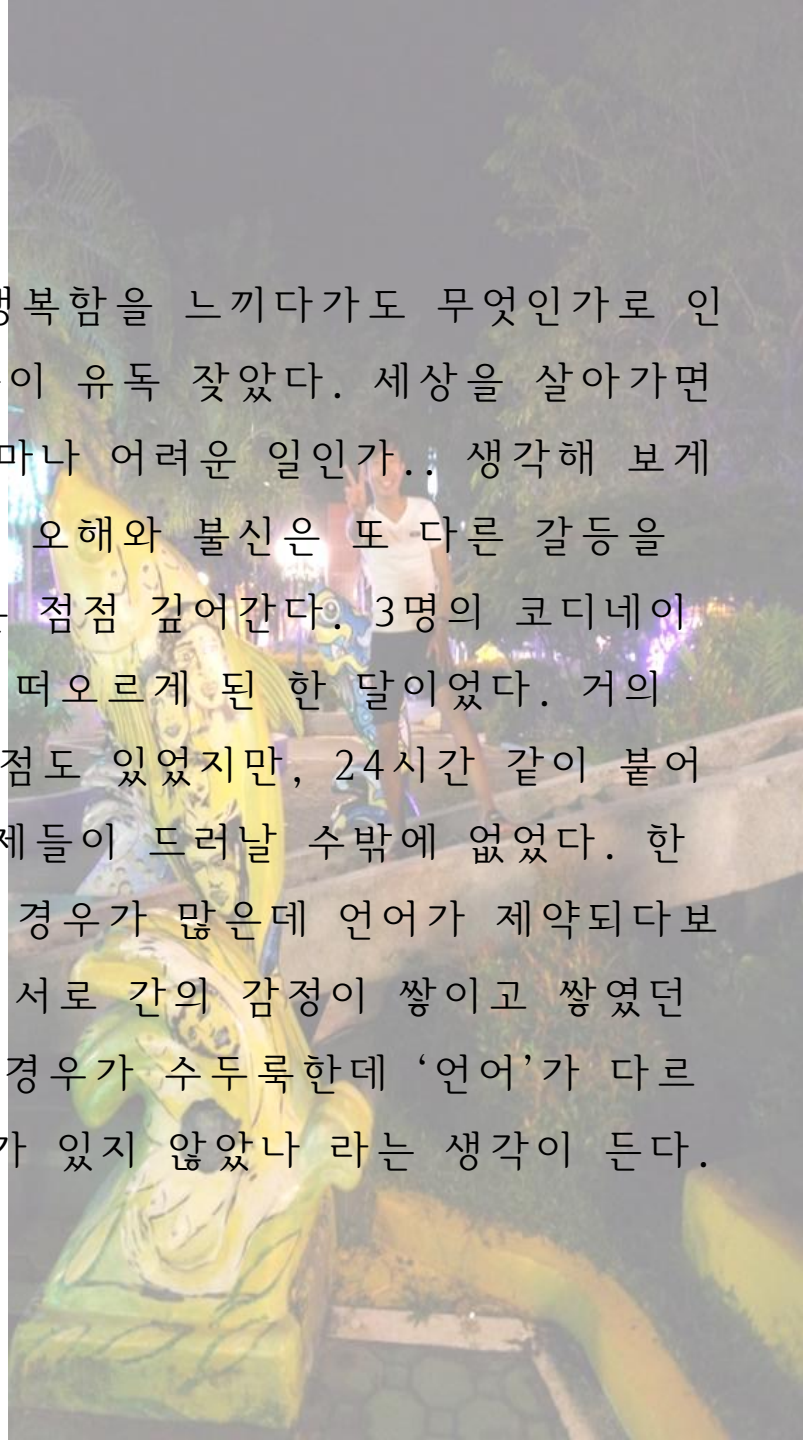
강경구(베드로)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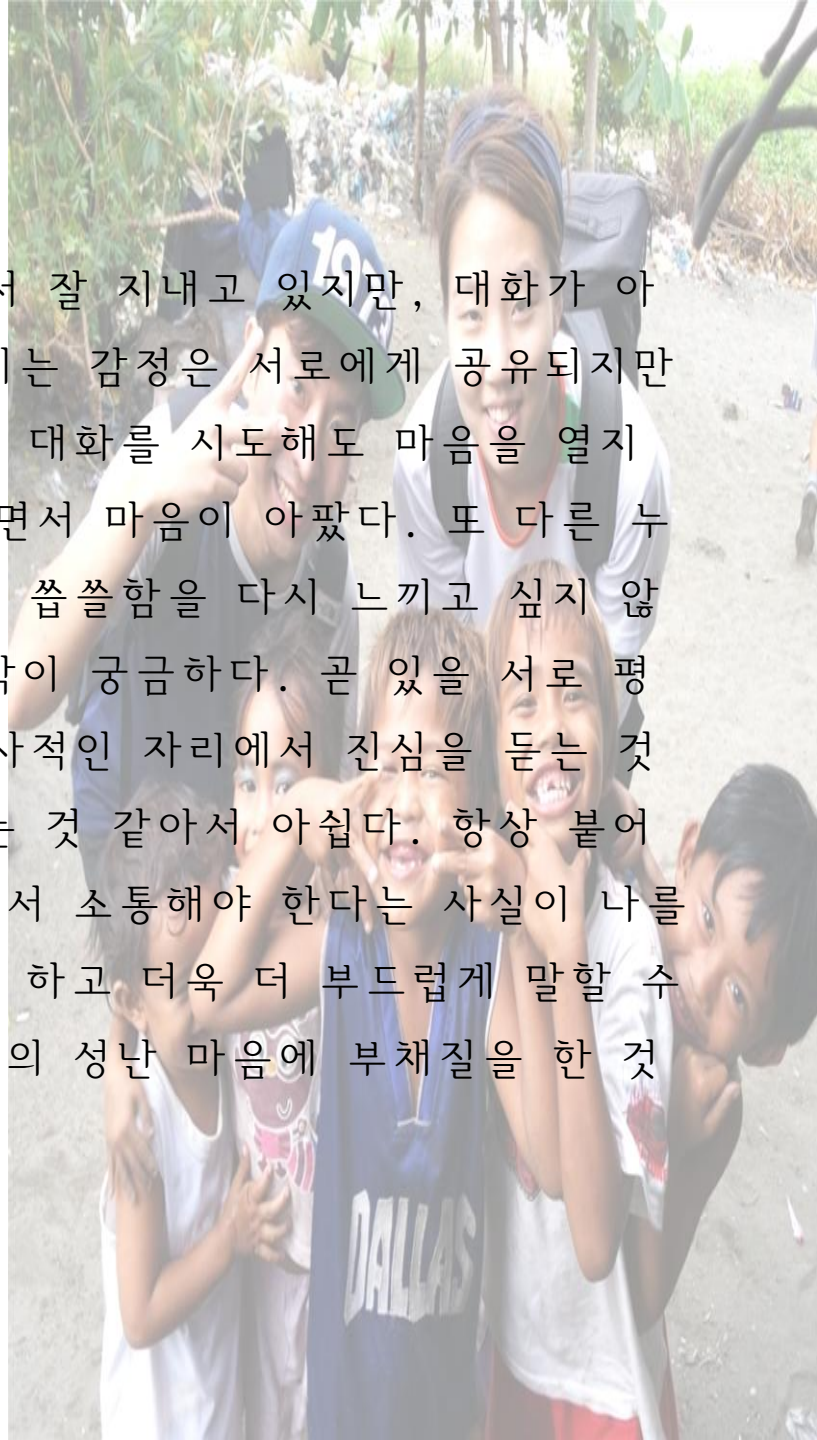
한 달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다. 이번 한 달은 지난달과 다른 느낌으로 내게 다가온다. 첫 달, 걸음마를 갓 떼는 아기처럼 한발 한발 내딛기 바빴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대낮에 거리를 순회하는 장례식의 행렬,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소와 말들, 자신의 트라이시클에 타라는 운전사들의 외침이 낯설이 아닌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매일 걷는 거리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 그들의 웃음소리, 처음엔 미처 몰랐던 수많은 상점들과 숨은 골목들...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 둘 씹 다가와 나의 머릿속을 채운다. 나 또한 기억의 조각이 되어 누군가의 머릿속을 채운다는 생각이 든다. 두 달이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편안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들의 가슴 한 켠에 깊게 자리 매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영어 실력 탓에 말 수가 그다지 많지 않고 때론 지나치게 직설적일 때도 있지만, 항상 진심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 조용히 있을 때 걱정이 있냐고 물어봐주고 직설적일 때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행복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 ‘나’의 일부를 찾아가고 새로운 모습의 내가 발견될 때 소소한 기쁨을 느낀다. 소통의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과 프로젝트에 애착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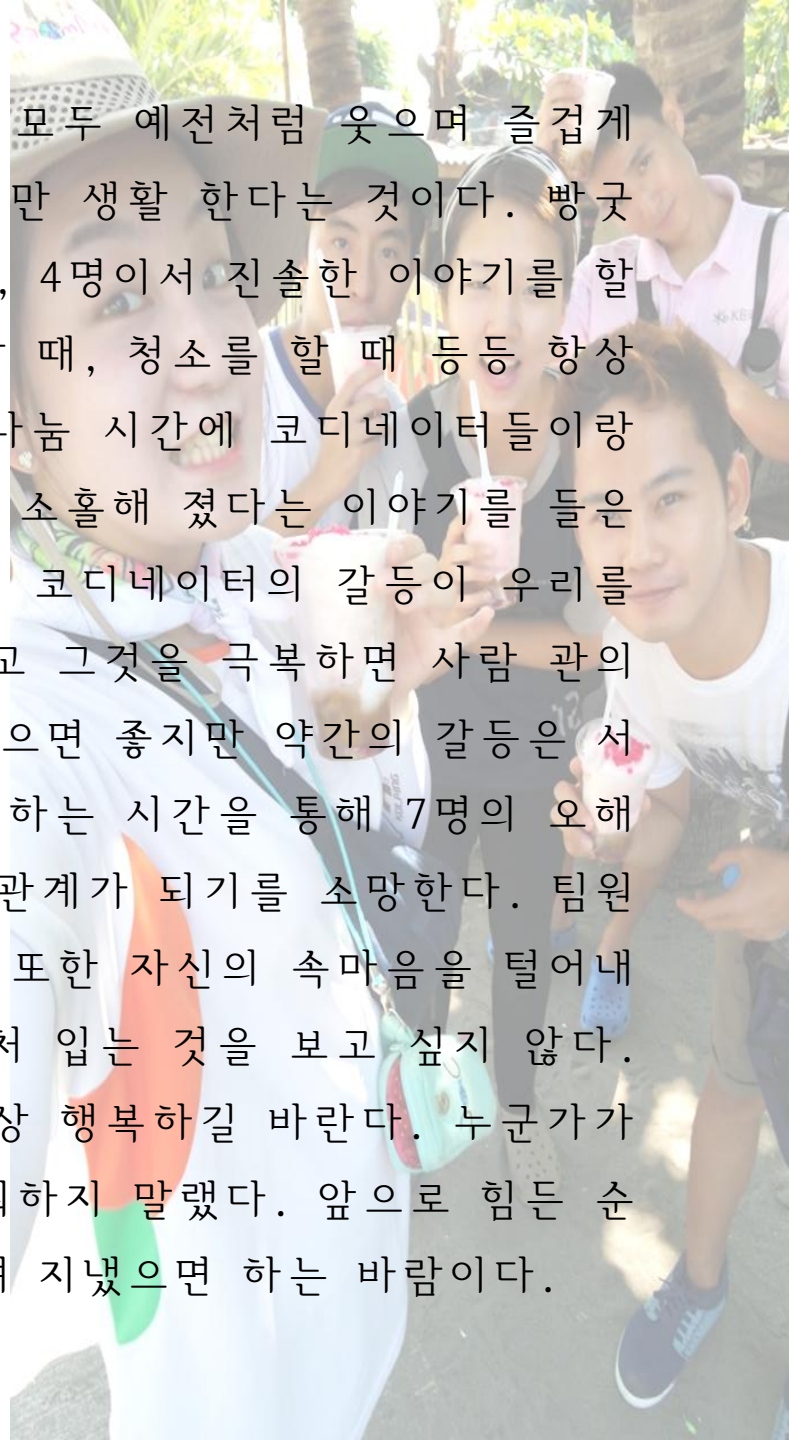
그러나 행복과 불행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다. 행복함을 느끼다가도 무엇인가로 인해 갈등이 빚어 질 때가 있다. 이번 달은 그 갈등이 유독 잦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 각자의 가치관의 대립, 그 속에서 피어하는 오해와 불신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한다. 서로 소통 하지 않으면 그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간다. 3명의 코디네이터들과 라온아띠들 간의 내재된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한 달이었다. 거의 두 달이란 시간동안 항상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24시간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생활 적인 측면이나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국에서 말이 통해도 함께 생활하면,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가 제약되다보니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소통 할 수 없어서 서로 간의 감정이 쌓이고 쌓였던 것 같다. ‘언어’가 같아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수도룩한데 ‘언어’가 다르니 의도치 않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무엇인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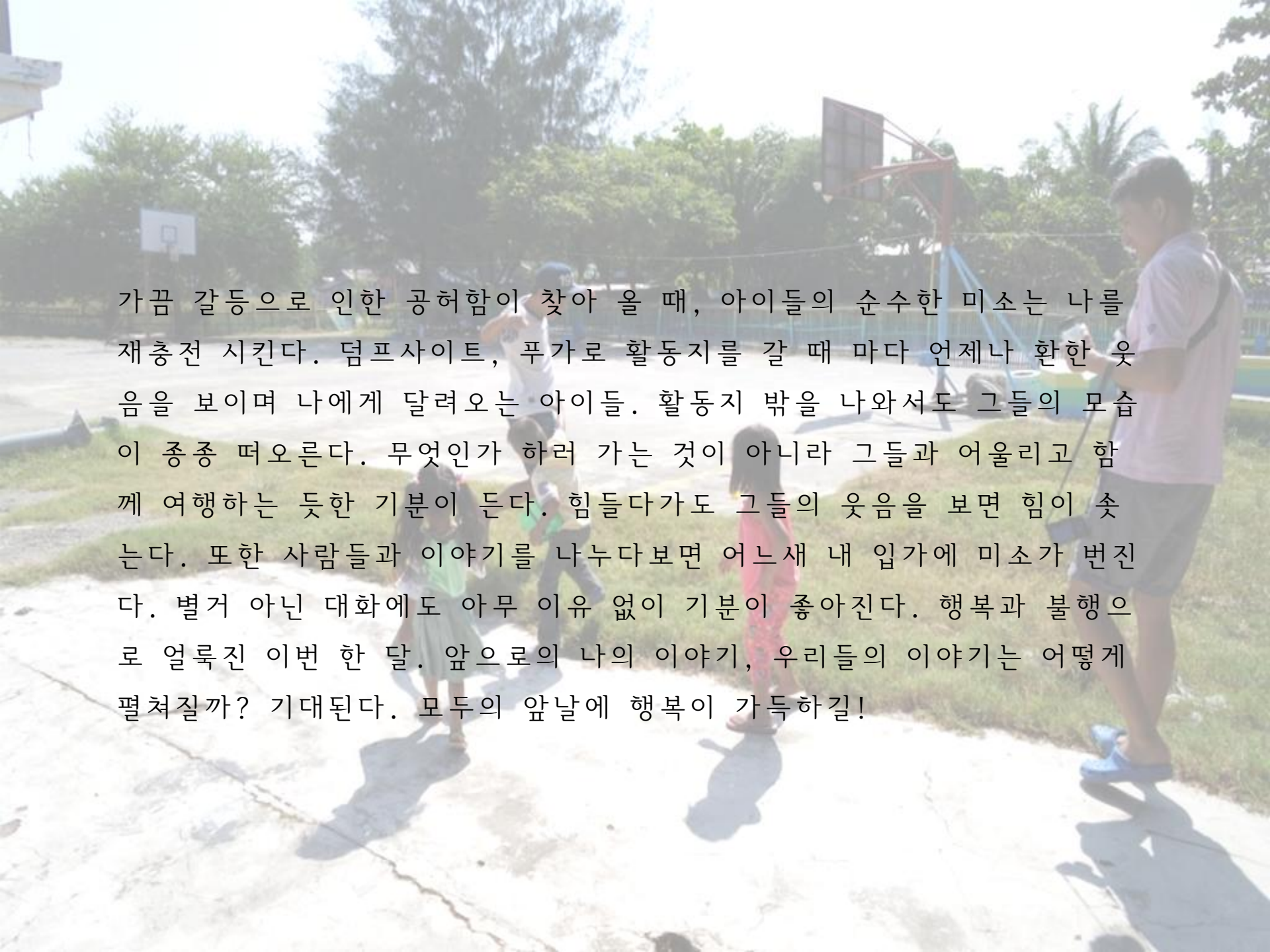


아직까지도 이유를 잘 모른다. 예전처럼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대화가 아닌 시간이 해결한 것 같아 아쉽다. 팀원들이 느끼는 감정은 서로에게 공유되지만 코디네이터들의 감정은 공유되지 않아 답답하다. 대화를 시도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누군가와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 의 씩씩함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다. 직접 대화를 하고 싶다. 코디네이터들의 생각이 궁금하다. 곧 있을 서로 평가하는 시간에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겠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진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정돈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항상 붙어 있고 이야기 할 시간은 많은데 꼭 자리를 만들어서 소통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힘들게 한다. 언어만 통했어도 그 때 그 때 해결 하고 더욱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의 성난 마음에 부채질을 한 것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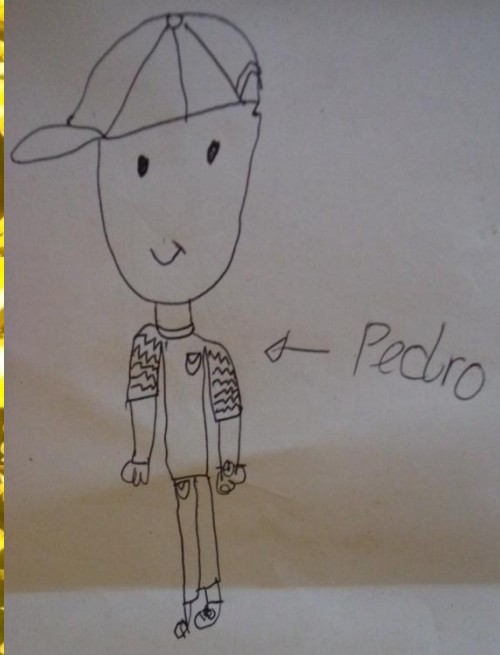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코디네이터들과 빵긔팀 모두 예전처럼 웃으며 즐겁게 활동 한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빵긔팀끼리만 생활 한다는 것이다. 빵긔팀끼리 생활을 하니, 그 전의 복적거림은 없지만, 4명에서 진솔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아서 행복했다. 장을 볼 때, 요리를 할 때, 청소를 할 때 등등 항상 함께 하니 서로를 더욱 챙겨주고 끈끈해졌다. 나눔 시간에 코디네이터들이랑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정작 팀원들에게는 소홀해 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했다. 코디네이터의 갈등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시련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 진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약간의 갈등은 서로를 성숙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번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7명의 오해와 갈등을 완전히 씻어내고 7명이 더욱 단단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팀원들이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처럼 코디네이터들 또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내 주었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 입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내 마음 속에 점점 크게 자리 잡는 사람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란다. 누군가가 미워 질 수 있겠지만,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종종 찾아 올 수 있겠지만, 소통하며 웃으며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끔 갈등으로 인한 공허함이 찾아 올 때,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는 나를 재충전 시킨다. 덤프사이트, 푸가로 활동지를 갈 때 마다 언제나 환한 웃음을 보이며 나에게 달려오는 아이들. 활동지 밖을 나와서도 그들의 모습이 종종 떠오른다. 무엇인가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고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힘들다가도 그들의 웃음을 보면 힘이 솟는다. 또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내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별거 아닌 대화에도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과 불행으로 얼룩진 이번 한 달. 앞으로의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 기대된다. 모두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길!



A group of people are on a beach at sunset. In the foreground, a person wearing a yellow long-sleeved shirt with the number '12' on the back and patterned shorts is walking away from the camera towards the ocean. They are wearing orange sneakers. In the background, four other people are standing near the water's edge, looking out at the sunset.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creating a bright glow and reflecting on the water. The sky is filled with soft, white clouds. The beach is sandy and has some footprints. A coconut shell is visible on the sand in the lower left. The overall mood is peaceful and nostalgic.

다음달에 만나요!